

음식점에 약 점심때부터 판벌여

최근 우리사회에 「고스톱」도박판이 만연, 중독자 회병리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종전 각종 모임에서 심심과적으로 즐기던 고스톱 화투놀이는 이제 거의 모든 모임에 등장, 동창회, 모임, 야유회는 물론 회갑연을 가족모임과 심지어 종교교인들의 반향회(班窓會)에서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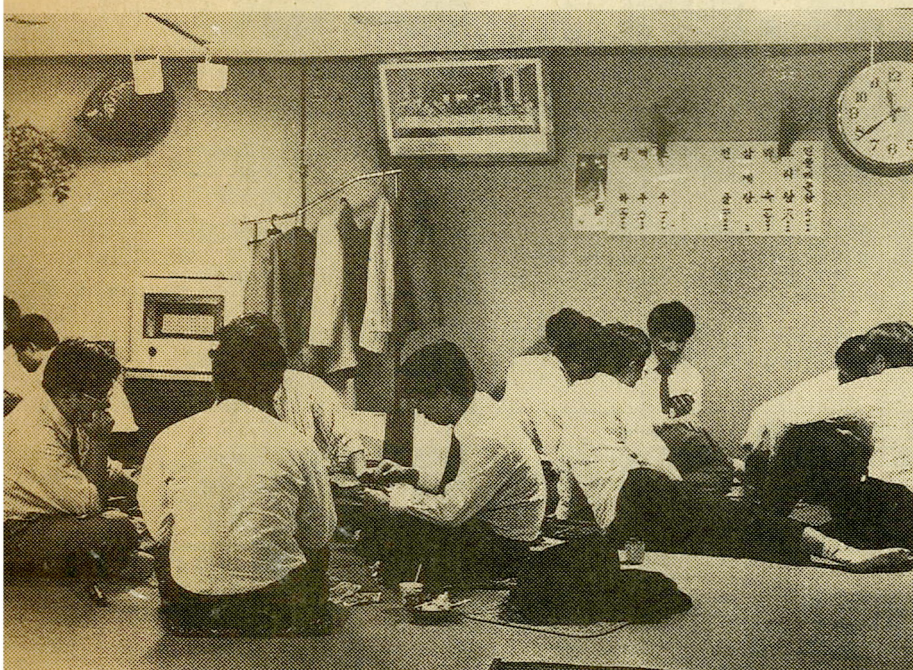
이같은 고스톱투전판은 또한 도시직장인을 사이에 두고 크게 번져 사무실 밑 집지여주변의 음식점,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에 섰는 모습을 가리지 않고 판돈 1백만원대의 도박판이 성행하면서 전부는도박장을 방불케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일밤 11시경 서울瑞草구 瑞草동 진동유동센터부근 K한정식집에서는 밤 5개에서 10여명의 「고스톱」 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 한판의 직장은 모두 4명이 오후 8시 퇴근 직후부터 「고스톱」을 치고 있었으며, 또한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도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밤 12시 점심때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줄판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음식점 종업원 이모씨(23)는 「순두부」, 「보통」 1점당 2천~3천원씩 새벽 3~4시까지 화투를 치면서 한판당 하루에 1

직장인 고스톱 熱 病



19일밤 11시40분경 서울 瑞草구 瑞草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상을 물린채 무리지어 「고스톱」도박에 열중하는 회사원들의 모습. <李勳求>

계모임 中高반창회서도 성행

李씨는 또 「작사가 잘될」 아올때도 있으며, 최근에 판 한루에 20개판이 찾는 고스톱 손님이 너무 불

며 며칠전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瑞草구 瑞草동 U턴도리

경 20평가도의 은돌방 3개에서 8개 테이블이 저녁상을 물린뒤 「고스톱」도박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음식점 주인 김모씨(53)는 「자릿값은 따로 받지 않지만, 음식값을 다른 곳에 비해 약간 비싸게 해 자릿값으로 대신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들은 고스톱 손님이 「음식의 질보다 하루

사우나 안마시술소도 도박장 방불 판돈 보통 百여萬원... 월급 날리기도

판돈 보통 100만 원 정도를 우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차모씨(37)는 장생활 초기에는 동료를 이끌며 술을 많이 마셨으나 요즘에는 술대신 합 「고스톱」을 자주 친다. 「서」 「때론 하루밤에 월급 투를 몽땅 날릴 때도 없 않지만 달리 즐겁지만 안락이 없다 보니 거의 매일 고스톱을 친다」고 실소를

서울江南區의 음식점 안마시술소 사우나탕을 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 들이 포커, 마작 등의 판돈 벌이고 있다. 박판도 벌이고 있다. 찰을 당국에선 도박인 가 없는 한 업계의 자율 제에만 내맡겨 놓고 있 며 음식점들은 「도박 지의 표어를 붙이는 것 로 자율단속을 위장하